

## 哲學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

朴鍾鴻

一

나는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을 現實的 存在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면 現實的 存在란 무엇인가. 엇더한 構造와 樣態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現實的 存在를 「實踐的인 第一次의 根源的 存在」라고 規定하여 보았다. 나는 마치 現實的 存在라는 概念에 있어서의 「現實的」이라는 말을 「實踐的」이라는 意味로 把握하였고 더욱 그 存在가 모든 觀念的인 存在보다도 第一次的이며 根源的이라는 意味에 있어서 「實踐的인 第一次의 存在」라고 하였든 것이다. 이로써 나는 現實的 存在라는 概念을 充分히 規定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大體 엇던 概念이든지 그것이 學術的으로 嚴密히 規定된 것을 우리는 그 概念의 定義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定義라는 것 自體의 性質을 다시 한번 吟味하여 볼 必要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 勿論 學問의 主題가 되는 바 엇더한 概念의 定義일지라도 그것이 充分한 本來의 定義가 되려면 學術的 研究의 結果 비릇오 可能할 것이오, 出發에 있어서부터 完全無缺한 定義의 確立을 要求함은 그 亦無理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타고 하여서 우리는 또 現實的 存在가 무엇이며 엇더한 것인지도 물으고야 엇더케 그것으로부터 出發인들 할 수 잇스랴. 이러한 疑問이 생기는 것도 當然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는 벌써 나의 出發에 있어서 엇더한 矛盾에 빠지고 말었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特히 注意하여야 할 것은 充分된 定義가 우리의 出發에 있어서 不可能하다는 것이 現實的 存在가 아직도 學問에 있어서 概念的으로 認識(erkannt)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意味함이오, 決코 現實에 있어서 直接으로 熟知(bekannt)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라 는 것이다.<sup>(二)</sup> 우리는 現實的 存在를 말하자면 先概念的(vorbegrifflich)으로 熟知하고 있기 때문에 日常의 現實的 生活을 營爲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熟知는 하되 概念的으로 充分히 認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充分히 認識하려고 努力하는 곳에 「哲學하는 것」의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하여 現實的 存在가 무엇이며 엇더한 構造와 樣態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는 우리의

哲學的 勞作이 깊어짐을 따라 비릇오 概念的으로 漸次明白히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何如間 現實的 存在를 概念的으로 明白히 把握함은 우리의 「哲學하는 것」에 있어서 中心的 課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現實的 存在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對한 明確한 解答이 나의게 要求되어 잇는 것이다. 나는 나의 「哲學하는 것」에 忠實하려는 以上 이 課題에 對한 最善의 解答을 얻으려고 慎重한 態度로 한 거름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나는 다시 이 解答自體의 方向을 左右하는 바 그 무엇이 잇지나 아니한가하고 보살일 必要를 느끼게 된다. 即 엇던한 立場에서는 以上 不可避的으로 엇던한 解答을 얻게 되는 것이나 아닐가. 다시 말하면 定義는 一定한 立場에 잇서서 可能한 것이오, 그 立場이 變 定義 自體의 方向을 制約한다고 볼 수 잇지나 아니한가. 그러면 또 그 立場을 左右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日常生活에 잇서서 現實的 存在를 熟知하는 그 樣態에 잇다고 할 수 잇다. 그저 現實的 存在를 熟知한다고 하지만은 千遍一律格으로 質的 差異가 없는 것이 아니오, 各自의 現實的 生活 即 廣義의 實踐이 엇던한 性質의 것인가에 따라 그 熟知하는 바 樣態가 달을 것이오, 熟知하는 바 樣態에 따라 現實的 存在를 概念的으로 規定하는 바 立場이 相異할 것이라는 것이다.

本是現實的 存在가 우리의 「哲學하는 것」에 잇서서 問題가 되는 것은 한낱의 學術的 好奇心의 對象으로서가 아니오 現實的 生活에 잇서서의 實踐이 解決을 要求하는 바 問題인 것이다. 우리의 問題는 知的 滿足을 爲하여 生起한 그것이 아니오, 實踐 自體가 要求하는 바 必然的으로 生起하는 問題인 것이다. 이리하여 現實的 存在가 가지고 잇는 바 우리의게 對한 問題性은 根源的으로 우리의 實踐에 뿌리 박고 잇다. 그럼으로 우리의 問題인 現實的 存在 把握의 方向을 이 實踐의 性質이 制約하고 잇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存在와 實踐的 關係에 잇는 것이오, 이 關係로 말미아마 存在는 사람의게 對하여 各樣의 意味를 가초아 顯出하게 된다. 存在가 가지고 잇는 바 意味는 사람의 實踐의 樣態에 應하여 비릇오 具體的으로 限定된다 할 수 잇스며 現實的 存在가 그의 現實性에 잇서서 把握되는 것이다. 무릇 現實的 存在는 實踐의 對象이오, 實踐에 잇서서 限定된 存在다. 그래서 現實的 存在의 存在性을 알려면 먼저 거기에 作用하고 잇는 實踐 自體의 性質부터 理解하여야 된다. 現實的 存在의 概念的 規定을 敢行함에 미쳐 우리는 모름이 엇던한 樣態 엇던한 性質의 實踐으로서 把握된 現實的 存在인가에 먼저 留意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비릇오 우리의게 現實的 存在의 存在性이 認識되는가 通路가 열리게 되는 것이오, 이 때에 이르러 現實的 存在는 自己의 存在性格

이 偏狹된 固定의 弊가 없이 그의 全體性에 있어서 把握되는 것이다.

現實의 存在의 存在性은 얕전한 純粹思惟나 純粹感情 같은 것으로 規定되는 것이 아니요, 人間의 現實的 實踐의 樣態로 말미아마 根源的으로 規定되는 것이다. 現實의 存在를 엇더한 것이라고 規定할 때에 벌써 그러케 規定하는 그 사람의 實踐이 그 規定을 制約하고 잇는 것이다. 이에 「哲學하는 것」은 哲學者 自身の 實踐的 態度를 가장 重大視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럼으로써 일즉히 希臘에 있어서도 「플라톤」은 哲學의 本質에 關하여 論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哲學者의 理念을 熱心으로 말하얏스며 ) 그의 弟子들을 「哲學하는 것」으로 引導하려고 할 때에 哲學者의 態度로의 轉向을 힘쓰게 하얏든 것이다. 「플라톤」에 依하면 哲學을 함에 있어서서는 먼저 온갖 情慾을 버리고 現實의 實際的 關心으로부터 떠나 地上의 身體生活로부터 自由롭게 되는 때에 비록 「이데아」의 認識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實踐的 態度의 轉向으로서만 哲學에 들어갈 수 잇다하여 哲學은 그것이 眞理의 認識이 前에 實踐的 態度의 轉向의 한 技術이라고 보얏든 것이다. 더욱 中世紀의 基督敎的 哲學에 있어서서는 이러한 哲學的 態度의 重視는 一層顯著하얏든 것이니 卽 眞理로서의 神의 認識을 爲하여서는 嚴肅한 道德的 前提條件이 要求되얏든 것이다.<sup>(四)</sup> 이와 같이 하여 무릇 哲學的 態度가 없는 곳에는 哲學的 認識이 잇을 수 없다 하여 사람의 一定한 實踐的 態度 卽 哲學을 可能케 한다고 하얏든 것을 알 수 잇다.

그러면 現代의 우리로서 哲學을 함에는 엇더한 實踐的 態度가 必要한가. 우리는 哲學을 한다고 하여 古人의 그들과 같이 새삼스러히 엇던 特別된 實踐을 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의 哲學的 要求는 「이데아」의 認識도 아니요, 神의 認識도 아니었다. 現實의 存在로부터 出發하여 現實의 存在 그것을 概念的으로 明白히 把握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日常生活에 있어서 우리가 그로서 살고 잇는 가장 現實的인 社會的 實踐 다시 말하면 感性的인 社會的 活動 그대로서 可한 것이다. 卽 다른 實踐으로서의 轉向이 必要한 것이 아니요, 이미 그로서 生活하고 잇는 아니 生活하고 잇지 않을 수 없는 平凡한 듯 한 日常의 感性的 社會的 實踐<sup>(五)</sup> 그대로서 可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서의 立場이 現實의 存在의 把握을 엇더한 樣態에 있어서 制約하며 따라 그 現實性을 엇더한 性質에 있어서 規定하고 잇는가가 우리의 當面의 問題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現實의 存在란 무엇인가 엇더한 構造와 樣態를 가지고 잇는가에 對한 나의 追究의 第一段階가 되는 것이요, 나의 「哲學하는 것」의 出發에서 옮겨 놓는 첫거름이 되는 것이다.

나는 疎拙하나마 項을 노나 歷史的으로 보는 한편 더욱 現代에 있어서의

社會的 關聯에 비쳐어 우리의 實踐이 우리의 現實的 存在의 概念的 規定을  
 엇더케 制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實踐的 地盤이 우리의 「哲學하  
 는 것」을 엇더케 制約하고 있는가를 解明해보고저 함이 이 小論의 企圖하는  
 바 첫째의 目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爲先 나는 우리의 問題를 考究함에  
 있어서 그대로 看過할 수 없는 한 疑問的 難關에 常着한다. 그것은 곧 哲學  
 者의 個性問題다. 卽 우리의 實踐이 엇더한 性質의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엇  
 더케 우리의 「哲學하는 것」을 制約하는가는 哲學者의 個性이 달음으로 因하  
 야 做出되는 것이오 그 究竟에 있어서서는 決코 歷史나 社會가 左右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다. 萬一 이와 같이 하여 「哲學하는 것」을 制約하는 것이 明  
 白히 個性이라면 이 個性을 前面에 나타내어 그의 差異와 所由來를 應當問  
 題삼을 수 있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本是 現實的 存在로부터 出發하였  
 었다. 그것은 決코 엇더한 理想的 存在가 아니오, 現實에 있어서 每日보며  
 實踐하고 있는 그대로를 把握하려는 것이다. 이 때에 우리는 果然 各其 個性  
 에 適應된 實踐을 하고 있는가가 問題된다. 도로혀 個性을 發揮한다는 意味  
 에 있어서의 實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現實에 있어서의 그 實踐은 그 個性  
 으로하여금 利害的 關係로 얼키어 있는 社會的 本質 가운데에 吸取되게 하  
 야 全面的으로 보아 背後의 조고마한 差異를 形成하는데 不過한 微弱한 特  
 性으로 變化시키고 마는 것이 아닌가. 非本意的이나마 本來의 個性的인 自己  
 로부터 疎外되 여가는 것이 속일 수 없는 現實的 事實이 아닌가. 個性的인  
 自己로부터의 疎外라는 必然的 現象으로 말미아마 個性이 直接 그의 實踐을  
 制約하는 根據라기보다도 그 疎外로 생기는 社會的 現象이 그의 實踐을 全  
 面的으로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個人으로서의 無能을 暴露함이 없이  
 도로혀 그들의 肯定된 生活을 永遠化하려는 社會的 存在가 있는 反面에 個  
 性까지 否定된 非人間的 現實性에 直面하고 있는 社會的 存在가 있는 것이  
 오, 따라서 거기에 나타나는 바 實踐이 個性에 依한 그것이라기보다도 몬저  
 歷史的이며 社會的인 制約을 받는 그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럼으로써  
 우리는 偉大한 哲學者가 意識的으로 或은 無意識的으로 그의 時代의 社會와  
 가장 親近한 그리고 生氣있는 關聯을 가지고 잇섯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個性은 마치 그 時代相의 普遍性을 自己 안에 살리고 있는 特殊性이었던 것  
 이다. 나는 決코 個性을 無視하려는 것이 아니다. ) 個性이라고 할 때에 엇  
 더한 貴業은 그리면서도 嚴肅한 愛着의 念까지 떠올음을 속일 수 없다. 그러  
 나 一層強力的으로 現實에 있어서 實踐을 左右하고 있는 것이 歷史的 社會  
 的制約에 잇다면 우리는 얕전하게도 個性의 探究로부터 實踐樣態 把握의 첫  
 거름을 움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 社會的으로 制約되는 바 우리의 實踐이 엇더케 우리의 概念的 認識을 規定하고 있는가를 明白히 하려는 우리의 企圖는 決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大概 온갖 概念的 意識이 사람의 現實的 生活過程으로 因하여 制約됨은 事實이나 그러나 그 制約은 自覺的 意識的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도로혀 個人的 意識 以前에 벌써 實現되어 있는 것이며 더욱이 그 制約은 우리의 生活의 가장 現實的인 利害와 直接으로 억매여 있기 때문에 그 制約의 關係를 通察함은 容易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엇더한 概念的 意識으로서 나타나고 보면 그는 本來의 出生한 實踐的 地盤을 忘却하고 分外的 普遍性 또는 絶對性을 要求하게 됨으로 그의 被制約性은 掩蔽되어 있는 것이 例事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目的은 各異한 概念的 意識의 特殊性을 그저 比較研究함으로서 到達되는 것이 아니오, 現實的인 實踐的 地盤에 對한 內面的 諸關係를 暴露究明하는 態度를 擇하게 되는 것이다.

(一) 本誌 第一號 十二頁參照

(二) 이 erkannt와 bekannt와의 區別은 Hegle이 그의 著書 Phänomenologie des Geistes의 Vorrede에서 取한 態度다. 또 Heidegger도 그의 著書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S. 217.에서 兩者를 區別하고 더욱 bekannt가 vorbegrifflich 함을 말하였다.

(三) Platon의 이러한 勞作은 그의 有名한 著書 Politeia에서 歷歷히 엿볼 수 있다.

(四) 今日에 있어서도 우리는 「카토릭」教徒의 哲學的 態度가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이대까지라도 眞擊한 精進그것이라는 것은 익히 듣고 있는 바이다.

(五) 나는 實踐이라는 術語를 廣義로는 大概 사람의 現實的 生活의 全體로 解釋해야 아무러한 社會的 區別로서도 制約함이 없이 使用하고 狹義로는 特히 直接으로 身體的 勞作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의 實踐으로 解釋하여 여기에 感性的 社會的 實踐이라고 해야 본 것이다. 그러나 只今 여기에 對한 不完全한 나의 分析은 다시 後日의 課題로 남겨두고 싶다.

(六) 나는 누구의게나 特殊한 個性이 儼存함을 確言한다. 그리고 그것을 保護하며 북도꿀 必要가 있고 서로 理解해 주어야 될 義務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可能함에는 우리는 不得已 어떠한 社會的 情勢의 前提를 必然的으로 要求케 되는 것이 아닐가.

## 二

現實的 存在의 現實的인 存在性을 規定하는 것이 實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實踐에 있어서 現實的 存在의 構造가 形成되어 있는 것이다. 現實的 存在를 特히 實踐에 있어서 把握함은 現實的 存在를 그 自體에 있어서 完了된

것으로 看做하거나 또는 그것을 特히 運動에 잇서서 把握함이 없이 靜的으로 固定시켜 觀察하려는 잘못을 멀리하고자 함이다. 實踐은 相互間的 存在性を 規定하면서 發展하는 바 諸契機로서 된 「動的」이며 全體的인 現實的 存在의 具體的인 存在性이다. 그럼으로 各 時代에 屬하는 사람은 그 時代 特有的 樣態로써 實踐을 하고 잇는 것이며 따라서 그 各異한 實踐의 樣態로 말미아마 그 時代의 現實的 存在는 그 特殊性에 잇어서의 存在性이 把握되는 것이다.

希臘人의게 잇서서는 社會的인 實踐的 生活보다도 觀想的 生活이 더 一層 사람답은 生活로서 생각되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生活を 享樂의 生活, 社會的 生活, 觀想的 生活의 세 가지로 區別하여 觀想的 生活의 淨福을 稱頌하였었다. ) 이러한 觀想的 生活 속에서 希臘人이 獲得한 바 一切의 學問的 認識의 手段은 무엇이엇든가. 그것은 곳 概念으로서의 「로고스」이 었다. 希臘人이 認識의 手段으로 譯한 바 이 「로고스」의 固有한 機能은 무엇이엇든가. 「아리스토텔레스」에 依하면 「로고스」의 機能은 存在를 나타내는 것 即 光明가 온대에 집어내여서 보이게 하는 것이엇든 것이다. 따라서 存在라는 것도 그 本質上 보이는 것 自己 自身을 光明가 온대에 顯出하고 잇는 것이로되 우리게 對하여 浮動하며 生滅하는 바 現象이라고 보았었다. 그럼으로 「로고스」가 이 浮動하며 生滅하는 바 現象을 救出하여 一定한 概念으로 固定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簡單한 例를 들면 只今 나의 앞에 놓인 冊床은 空間的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位置에 따라 여러 가지 形狀으로 보일 것이오, 時間的으로 時時刻刻으로 變하는 光線의 強弱과 方向을 따라 同一한 冊床이 多樣의 色彩를 呈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冊床」이라는 概念으로 固定되면 變化와 消滅 가운데에서 救出되어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思惟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即 冊床이 「冊床」이라는 말로 表現되고 따라서 그 表現됨으로 因하여 冊床이 「로고스」 即 概念으로서 存在케 됨에 이르러 우리는 現實的으로 그 冊床을 보지 않드래도 「冊床」이라는 그 概念으로서 思惟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希臘人의게잇서서는 固定된 概念을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思惟는 存在를 視覺보다도 優越한 意味에 잇서서 「보는 것」이라 하여 이러한 觀想的 思惟로서 비릇오 自己 自身을 光明 가운데에 顯出하는 存在를 가장 明白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든 것이다. 概念으로서의 「로고스」나 觀想的 思惟가 모다 存在를 視覺으로서 보다도 一層 優越한 意味에 잇서서 「볼 수 잇는」 認識的 手段이라고 생각하였든 것이다. (二) 그러면 希臘人은 어찌하여 이처럼 「보는 것」 即 觀想的 態度로서 哲學을 하게 되었든가. 그들의 生活이 奴隸制度로서 維持되어잇는 有閑한 生活이엇기

때문이다. 閑暇한 그들의 現實的 生活이 그들로 하여금 必然的으로 閑暇한 觀想的 態度로서 哲學을 하게 한 것이다. 나는 以上으로서 希臘人の 有閒한 觀照的인 現實的 實踐이 그들로 하여금 存在를 規定하여 自己 自身을 光明 가운데에 顯出하는 것으로 보게 하였고 더욱 사람의 本質을 또한 「보는 것」 即 觀想에서 찾으려고 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사람의 認識은 그저 存在를 受動的으로 觀想하는 데에 不過한 것이 아니다. 死物인 體鏡에 物件이 비추이는 것과 같은 靜的인 模寫가 아니요, 도리어 能動的인 實踐으로부터 把握되는 것이다. 우리의 認識도 具體的인 實踐을 떠나서는 存在와 接近할 何等の 現實的 通路도 찾아내일 수가 없는 것이다. 存在의 把握은 實踐을 떠나서 잇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存在에 對하여 能動的 作用을 함으로서 비릇오 成立되는 것이다. 比較的 單純한 感覺만 하드래도 한갓 觀照의 產物인 것이 아니요, 感性的 實踐의 產物인 것이다. 對象이 變하면 實踐을 빼놓고서라도 認識도 따라서 自然的으로 變한다고 보는 照應說은 完全히 誤謬인 것이요, 對象에 積極的으로 活動하는 過程에 잇서서 뿐 또한 認識도 發展하는 것이다. 이럼으로써 實踐으로부터 遊離하여서는 認識 自體가 發展할 수 없는 것이다. 「로고스」의 機能에 잇서서도 우리는 그것을 묻저 觀想的 思惟의 手段으로 볼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言語」的 表現으로 解釋하여 그 根源性에 잇서서 理論을 爲한 것이라는 것 보다도 實踐을 爲한 것이라고 볼 것이나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아까 引用한 例를 다시들면 冊床이 「冊床」이라는 「로고스」로 表現됨으로 因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冊床의 生産이라든가 賣買 等 日常의 社會的 實踐을 容易케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存在의 概念化도 사람의 實踐을 爲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果然 文藝 復興期에 이르러 自然科學이 成立 됨을 따라 學問에 對한 새롭은 理念이 생기게 되였다. 거기에 잇서서는 學問은 벌서 希臘과 같이 單純한 觀想을 本質로 삼을 수 없게 되였든 것이다. 實로 十五, 六世紀의 所謂 發見及 發明時代는 新興의 市民的 社會가 改良된 生産手段과 一層急速한 海上의 交易을 要求케 되였슴에 因하는 것이요, 自然은 그저 認識의 對象으로서 對立하여 잇는 存在가 아니요, 그에 對한 사람의 奮鬪의 過程에 잇서서 征服되여야 할 存在로서 把握된 것이다. 自然에 對한 헛된 驚異는 神話는 나올 수 잇스나 自然科學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科學이 自然의 客觀的 條件과 法則을 探求함도 畢竟은 自然에 對하여 實踐的으로 活動하여 이것을 支配하며 變化코저하는 前揭인 것이요 그 根柢에 實踐的 克服的 態度가 嚴存함은 가리울 수 없는 事實이다. 「베-콘」의 「知的 힘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態度를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난 바 科學的 方法으로서의

實驗은 自然에 對한 技術的 干涉으로부터 생겨났다. 實驗은 決코 自然을 그 대로 觀察함으로써 滿足하지 못하고 도로혀 實踐的으로 自然에 對하여 活動코저한다. 實驗은 다못 純粹한 認識的 態度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요, 무엇 欲求되는 것을 生産코저하는 實踐的 態度 가운데 그의 根柢를 두고 있는 것이다. 實驗이 그의 發生에 잇서서 技術的 干涉으로부터 생겼다는 것도 技術이 純粹한 理論的 觀想的인 學問의 뒤를 따르는 隨伴的인 應用에 不過한 것이 아니요, 오히려 強弱은 如何間에 이피잇는 바 現實的 存在를 支配 或은 制御하려는 過程에서 생긴 것이며 이러한 方法이 科學的 研究의 方法에까지 延長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벌써 昔日의 大學에 잇서서 보든 바 「스콜라」的 哲學態度는 자취를 감초고 말었다. 여기에서는 感性的 社會的 實踐과 科學的 思惟가 古代模樣으로서로 分離되어잇지 아니하고 產業的 勞作과 科學的 方法이 서로 結合되어 비릇오 近代의 모든 學問의 飛躍的 發展을 可能케 하얏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新興의 市民的 社會는 既往의 封建的 僧侶的 社會의 受動的인 觀想的 構成을 漸次로 물리치고 그들의 生産的인 實踐이 새로 擡頭한 學問의 地盤이 되었스며 이로써 現實的 存在는 우리가 征服하여야 할 實踐의 對象으로 把握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現代는 어떠한가. 大概 歷史進行의 過程에 잇서서 特히一定한 社會가 限界狀況에 處하게 되는 일이 있다. 여기에 限界狀況이라 함은 終局的인 窮迫에서 헤매이는 사람의 存在樣態를 이룸이다. 견대기 거북한 막다른 골목의 困難 밑에서 인제는 力盡하여 그 앞에 一死 뿐이 남아잇는 그러한 사람의 存在的 窮迫인 것이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는 모든 權威도 氣勢를 쓰지 못한다. 이때에는 사람의게 屬한 全存在가 問題가 된다. 이때의 問題는 가장 具體的인 것이다. 사람의 精神뿐이 問題될 수도 없고 身體 뿐이 問題될 수도 없게 된다. 모두가 問題이며 여러 가지 立場 그것조차 인제는 一面的의요, 抽象的인 것으로 나타나 一切의 問題는 마치 뒤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때의 問題는 어중간한 解決로서 끝맺을 수 없을 만치 徹底하게 追求되며 따라서 가장 根源的이며 絶對로 自由롭은 問題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究極的 決定이 그의 實踐에 잇서서 絶對的으로 要求되는 것이다. 限界狀況은 最後의 窮迫이니만치 必然的으로 觀想的일 수가 없고 어대까지라도 實踐的 解決이 要求된다. 여기에는 마치 「스콜라」主義的인 無際限한 理論을 爲한 理論이 멀리 關心의 圈外로 一掃되고 마는 것이다. 이에 우리의 「哲學하는 것」은 우리의 새롭고 씩씩한 實踐的 地盤에 立脚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대까지라도 實踐으로서 解決이 可能한 限界狀況의 일이라 이 實踐에 直接關聯을 가지지 않는 如何한 思想도 우리의게 對하

야는 現實的일 수 없는 것이다. 한번 이러한 切迫한 實踐的 立場에서면 永遠한 將來 따라서 完結된 體系로서 나타날 수 있는 絶對的 眞理 그것이 問題가 아니다. 도저히 참으로 現代의 問題를 實踐으로 解決할 수 있는 認識이 무엇인가가 絶對的인 問題가 되는 것이다. 單只 永遠한 眞理의 理念만 들추고 있어 잇슴은 오히려 非現實的인 헛된 概念的 意識에 不過할 것이다. 우리 의게는 어떠한 當爲 어떠한 理想郷이 直接問題인 것이 아니요, 다만 現代의 우리들의 實踐으로서 現實的 存在가 엇더케 把握되는가를 明白히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實踐은 어떠한 現代의 特色을 가지고 잇는가. 따라서 우리가 把握하는 바 現實的 存在를 엇더케 規定하고 잇는가.

(一) 우리는 Aristoteles의 著書 Ethica Nicomachea 第十卷에서 그러한 叙述을 볼 수 있다. (Ross 英譯全集第九卷中 Ethica Nicomachea Book X. 8. 1178b 參照)

(二) 이와 같은 傾向을 우리는 今日의 現象學에 잇서서 본다. 더욱 우리가 解釋學的 現象學者인 Heideger의 著書 Sein und Zeit의 첫머리를 읽을 때에 이러한 생각이 다시금 濃厚하여질 것이다.

(三) 東洋에서 보기 쉬운 冥想的인 哲學的 態度도 그 發生의 源油를 歷史的으로 冷靜히 追窮하여 본다면 亦是 希臘의 그것과도 相類한 生活的 地盤이 잇섯을 줄 안다. 그리고 概念으로서의 「로고스」를 過重視한 末弊는 드디어 中世의 Schola的 文義的 思辨으로 나타났었다. 東洋의 所謂 訓詁學도 이러한 弊端을 免치 못하였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三

眞正한 意味에 잇서서의 限界 狀況에 處한 사람의게는 左右를 도라볼 餘暇가 없을 것이다. 死에 直面하여야는 實踐的으로 自己의 困境을 克服하는 수 밖에 없게 된다. 觀想的 思惟로서가 아니요, 一層 感性的이며 社會的인 實踐으로서야 可能할 것이다. 이러한 感性的 社會的 實踐을 하는 사람의게 잇서서는 外界의 客觀的 嚴存은 疑心할 수 없는 事實이 되어 잇는 것이다.

外界가 實在하는가 안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感性的인가 아닌가를 問題삼음은 思辨哲學의 閒事에 屬할 뿐이다. 이러한 問題는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 그가 處한 限界狀況을 克服하여야 될 사람으로서는 벌써 原始的 事實이 解決하고 남은 일이다. 아마도 觀念論者 「바-크레이」로서도 그의 實際生活에 잇서서는 外界事物의 存在를 否定할 수 없었슬 것이다. 果然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서 살고 잇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對象으로 活動할 무엇이 事實에 잇서서 存在치않든가 或은 오직 우리의 觀念的 影像에 不過하다든가 하다면 感性的 社會的 實踐은 不可能할 것이다. 사람이 感性的 社會的 實踐을 함에 當하여서는 實踐할 무엇이 이미 거기에 잇서야 할 것이요, 더욱 그 사람과는

獨立하여잇는 他者로서 잇서야 할 것이다. 感性的 社會的 實踐에 從事하는 사람으로서는 外界의 事物의 屬性 乃 至法則에 順從함으로써 비릇오 그 事物을 自己生活의 所用品으로 變할 수가 잇는 것이다. 이 때에 사람은 外界事物에 對한 自己의 認識이 사람의 意識과는 獨立하여 外界에 存在한 事物의 性質을 把握하고 잇슴을 疑心치 안는다. 萬一 外界事物에 對한 사람의 認識이 그 事物의 屬性和 法則을 正當하게 把握하고 잇지 않다면 그 事物을 取扱함에 當하여 그 感性的 社會實踐은 先取로 도라가고 말 것이다. 廣義의 實踐에 잇서서도 이 外界의 嚴存한 存在는 前提치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 가장 徹底한 觀念論者라고 할 「피히테」에 잇서서도自我는 自己의 實踐的인 本質을 發揮하기 爲하여 自己가 克服하여야 할 抵抗으로서 「自我아닌 것」을 要請하고 따라서 必然的으로 非我를 定立함에 이룬다고 생각하였든 것이다.

한 거름 더 나아가 「피히테」는 自我의 實踐的인 根本的 規定으로부터 感覺 따라서 感性的인 世界를 演繹하려고 하였다. 사람이 實踐的인 以上 거기에 對하여 活動할 對象이 虛無한 影子일 수는 到底히 不可能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피히테」에 잇서서는 實踐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말하는 바 感性的 社會的 實踐이 아니오, 어대까지라도 廣義의 叡智의 活動이었슴으로 自我가 自己의게 抵抗하는 것으로서 定立한 非我 그것조차 오히려 아직도 觀念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였든 것이다. 우리가 現代에 잇서서 問題로 삼는 바 實踐은 實로 사람의 感性的 社會的 活動을 이룸이며 따라서 거기에서 把握되는 現實的 存在는 感性的인 存在 以上の 다른 것일 수가 없다. 우리의 感性的 社會的 實踐 앞에는 무릇 엇더한 觀念的 存在도 稀薄한 觀照와 더불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다음으로 感性的 社會的 實踐에 살고 잇는 사람은 外界의 存在를 感性的으로 把握할 뿐 아니라 그 實踐에 잇서서 關聯되고 잇는 人間도 또한 感性的 存在로서 把握케 된다. 古來로 人間은 思惟로서 動物과 區別된다고하여 理性的인 것으로 人間을 把握하여 왔었다. 그랬든 것이 近代에 이르러 理性을 前面에 나타내이지 않는 人間學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의 Existenz라는 概念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個人의 內面的 主觀性을 이룸이며 어대까지라도 主觀的 立場에 머물러있다. 비록 可能性을 媒介로 한다고 보는 知識의 態度를 排斥하고 行爲的이며 現實的인 主觀性이었다고 할 수 잇스나 亦是 內面的 倫理的인 主觀性에 不過하였든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을 마치 「아우구스티누스」의 所謂 「深淵에 臨한 人間」으로 把握하였었다. 現代의 感性的 實踐으로서 살고 잇는 우리는 人間을 單只 그러한 主觀的 立場에서 把握할 수가 없게 되고 「道具를 制作하는 人間」으로서 人間

을 把握케 되넋이다. 이 때에 注意하여야 할 것은 感性을 抽象的으로 理解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感性은 感覺 自體를 또는 純粹感覺을 意味함이 아니오, 우리의 存在樣態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갓 受動的 感受的인 것이 아니오, 어대까지라도 能動的 活動的인 것이다.

다음으로 오직 思惟나 觀照만을 일삼는 사람의게 잇서서는 自己의 本質을 孤獨한 存在로서 解釋할 수 잇슬는지 몰으나 感性的 社會的 實踐에 살고 잇는 사람은 그들의 生産的 活動에 잇서서 單只 自然에 對해서만 活動하는 것이 아니오, 또한 사람 相互間 서로 關聯한다. 特히 近代的 生産은 그 樣態에 잇서서 社會的인 것이다. 人間은 一定한 樣態에 잇서서 共同으로 作用하며 또 서로 그들의 活動을 交換함으로서뿐 生産할 수가 잇게 되엿다. 生産하기 爲하여서는 人間은 一定한 關係로 서로 關聯되어 그 社會的 關係에 잇서서 單只 自然에 對하여 活動할 수 잇고 따라서 生産할 수 잇는 것이다. 感性的인 實踐으로 사는 以上 人間은 必然的으로 社會的이다. 우리는 人間을 現實에는 存在치도 않는 一個의 抽象體로서 把握할 수 없고 社會에 잇서서 感性的 社會的 實踐을하는 人間으로서 把握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哲學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感性的 社會的 實踐의 地盤에 立脚하여야 된다면 우리는 不可不自然과 同時에 社會의 客觀的인 條件과 法則을 홀로 벗어나 잇슬 수 없게 된다.

大體 社會的인 感性的 實踐은 그것이 어떠한 程度로 發達하면 至今까지 單一하였든 그 實踐過程이 여러 가지의 特殊部門으로 區分되는 것이다. 이 때에 社會的으로 生起하는 여러 가지 特殊現象은 드디어 直接的인 感性的 社會的 實踐過程으로부터 遊離된 사람들을 나케 된다. 그들은 全然 他人의 感性的 社會的 實踐을 管理할 뿐이오, 마치 精神的 勞作에 從事하는 것을 自己네들의 特權과 같이 生覺케 된다. 그들은 感性的이라는 말을 어떤 人種의 卑劣이라도 聯想케 되는 것 같이 忌避하여 自己네들의 思惟야말로 그 自身 아무런 生命도 理性도 가지지 못한 存在에다가 意味와 生氣를 附與하며 秩序를 投入하는 原動力인 것과 같이 空想하게 된다. 그리하여 理論은 더욱 實踐的 地盤을 떠나 理論 自身の 世界로 蟄閉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부터 遊離된 그 觀念을 獨立한 本體로 化하여 그의 創造力까지 強調하게 되며 더욱 그 思想이 萬人共通의 妥當性을 가졌다고 主張하게 된다. 感性的 社會的 實踐에 따르는 온갖 苦楚를 超自然的인 觀念으로 掩蔽하려고하며 이것을 人生의 崇高한 義務라고까지 敎訓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부터 遊離된 그네들의 觀念은 벌써 實踐性을 잃은지 오래고 單只 「로고스」 안에서의 論議에 不過한 것이다.

勿論 如何한 概念的 意識의 樣態라 할지라도 처음 생겨날 當時에 잇서서는 眞理를 가지고 잇섯스나 그것이 固定하여 어떠한 權威의 힘을 비러 抑制로 自己를 主張하게 될 때 現實의 不斷의 發展과 相應치 못하여 새롭은 時代의 眞理가 되지 못한다. 現實的 存在는 끊임없이 發展하여 이의 一定한 抽象物로 化한 昔日의 觀念의 頑固한 自己 主張과 矛盾됨으로 우리의 現實的 存在는 自己와 같이 進就하여 나오지 못하는 말하자면 彈力없는 思想을 止揚하며 나가게 된다. 始初에는 實踐的 地盤으로부터 생겨났스며 그것의 把握이오, 表現이어서 그 實踐的 地盤을 살리고 發展시킴에 도움이 되었든 理論이 그의 絶對的이며 專制的인 位置를 占하게 됨에 미쳐 只今은 도로혀 그 地盤의 發展을 抑制하며 堪當할 수 없는 桎梏으로 變하고 마는 것이다. 이리하여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부터 遊離된 사람들의 觀念이 現實的 存在의 客觀的 法則을 誤認 또는 歪曲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잇다면 그들의 觀念은 이의 眞理로부터 뒤떨어진 意味에 잇서서 虛僞라 할 수 잇고 더욱 그들의 誤認과 歪曲이 多大數는 無意識的으로 되는 것이매 또한 그 虛僞도 無意識的 虛僞라고 할 수 잇다.

나는 위에서 우리의 實踐이 그의 性質을 따라 우리의 現實的 存在把握의 方向을 어떻게 規定하고 잇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哲學하는 것」을 어떻게 制約하고 잇는가를 簡單히 말하얏다. 그러면 끝으로 나 自身の 實踐은 어떠한 것인가가 當然히 問題될 것이다. 나는 果然 上述한 바 感性的 社會的 實踐으로서 살고 잇는가. 오히려 所謂 哲學工夫를 한다고 하여 마치한 敎養으로서 他人의 觀念을 吸取하기에 猶日不足의 形便이 아닌가. 實踐的 地盤 위에 建設되는 나의 哲學이라기보다도 他人의 觀念을 이리못고 저리부쳐서 가장 조고마한 것이라도 其實 自己의 것이 되지못하지나 안는가. 單品 理論의 新鮮味를 理論 속에서 차즈려고 헤매이는 마치 好事獵奇의 一種에 不過한 것이 안 닐가. 果然 나의게 엇더한 實踐이 잇는가. 나의 「哲學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은 무엇인가. 自己가 못하는 他人의 感性的 社會的 實踐에 마치 感情移入을 하얏든가. 그러나 假使 感情移入이 可能하다 손치드래도 그것은 한낱의 假象이라고 할 수는 잇스되 그것이 實際에 잇서서 感性的 社會的 實踐 그것으로서 살고 잇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結局 나라는 存在를 너무나 個人的 抽象的으로 생각하얏든 것이 아닐가. 只今 내가 이 붓을 들고 이 冊床 앞에 안자잇는 것도 亦是 社會人으로서 眞可能的한 것이오, 비록 微微한 生活이나마 내가 屬하는 그 社會의 影響을 全般的으로 받고 안자잇는 것이다. 感性的 實踐 그것이 그의 本質上 社會的임을 말하얏거니와 同一한 處地에서 社會的으로 生活하고 잇는 以上 同一한 制約이 나의 哲學하는 것

을 左右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哲學은 나의 哲學이라기 보다도 우리의 哲學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哲學하는 것」은 個人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同一한 實踐的 地盤을 가진 우리인 것이다. 따라서 「哲學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도 「나」라는 것을 前面에 두고 論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것을 차저야 할 것이다. 實로 나는 나의 實踐이 나의 「哲學하는 것」을 엇더케 規定하고 있는가하는 問題가 곧 우리의 實踐이 우리의 「哲學하는 것」을 엇더케 規定하고 있는가하는 問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一) Fichte의 Wissenschaftslehre에 關한 諸論述에서 이러한 意味의 內容을 읽게 된다. 木村素衛의 日譯 「全知識學の基礎其他」가 있다.

#### 四

나는 以上에 잇서서 「哲學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을 實踐이 理論을 制約하는 側面에서 보았다 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마치 理論은 實踐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잇섯든 것이다. 그러나 實踐으로 因하여 生産되였다 함이 理論이 또 다시 實踐化함으로 말미아마 새롭은 實踐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側面으로서 본다면 理論이 또한 實踐을 制約한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同時에 그때의 實踐은 理論을 檢證하는 役割을 履行한다. 假令 우리가 엇더한 事象에 關하여 把握한 法則이 眞理라면 우리는 그 法則에 依하여 그러한 事象을 發生或은 制作할 수 잇을 것이오, 더욱 그것을 우리의 目的에 適用할 수 잇을 것이다. 우리의 認識한 바가 眞理인가 아닌가는 再生産까지 할 수 잇는 實踐으로서 檢證될 때에 明確하야질 것이다 엇더한 事象에 對한 우리의 感官知覺이나 우리의 認識에 萬一 誤謬가 잇다면 그 事象을 利用코져하는 우리의 企圖는 失取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萬一 우리의 表象이 그 事物과 適應하야 우리의 實踐的 期待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 判明된 바면 그 範圍內에서 우리의 知覺이 眞理 잇든 것을 알 수 잇다. 同時에 「哲學하는 것」은 그의 實踐的 地盤을 한번 떠난 채로 遊離해 잇을 수 없고 그의 眞理性的 基準을 또한 그의 實踐的 地盤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이에 아무러한 理論的 問題라도 理論的 見地로서만 提起하며 解決할 수 없게 된다. 한 理論은 그 批判을 爲하야서도 오직 다른 理論을 對立기킴으로서 始作될 것이 아니고, 그 理論의 現實的 土臺를 吟味하는 同時에 實踐에 잇서서 檢證되는 바 잇서야 할 것이다. 絶對的 眞理로 無限히 接近하야 나아가는 바 認識의 發展의 原動力이 實로 그의 眞理性的 基準인 實踐에 잇는 것이다. 人類가 「나락」이라는 植物에 對한 眞理를 獲得한 것은 神이 傳授한 것도 아니오, 僥倖的으로 생각난 一時的 思惟로서 된 것도 아니다. 이 數千年數萬年の 長久한 歲月을 두고서 거듭

한 感性的 社會的 實踐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 過程에 있어서 失取와 誤謬도 非一非再이엇섯것지만은 이것을 反復한 結果 漸次로 「나락」에 對한 正當한 認識이 생겼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엇더한 眞理에 到達함은 單只一次的인 先驗的 思惟의 作用으로서가 아니오, 社會的인 人間의 長久한 歷史的 實踐의 過程을 밟아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暫間注意하고 가야할 것은 理論의 檢證을 實踐에서 찾는다는 것이 決코 有用性이나 所謂 思惟의 經濟 가운데에서 眞理性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萬一 後者와 같은 意味에 있어서 解釋한다면 그는 結局 「프로그마티즘」의 相對論 及 至主觀主義의 深淵에 빠져서 客觀的 眞理로부터 머러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有用한 認識임으로 眞理라는 것이 아니오, 眞理인 認識임으로 有用하다는 것이다. 卽認識이 사람으로부터 獨立한 客觀的 眞理를 反映할 때에 있어서 眞理인 實踐을 爲하여 生의 保存을 爲하여 또는 種族의 維持를 爲하여 有用하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해야 認識의 前提條件과 또한 決定條件을 卽 「哲學하는 것」의 地盤을 實踐 가운데에 求하는 곳에 理論과 實踐과의 辯證法的 統一이 成立됨을 볼 수가 있다. 좀 仔細히 말하면 理論과 實踐이라는 對立物은 서로 制約하는 것으로서 實踐便으로서 보면 實踐은 理論의 指導를 받음으로서 發展하고 그리하여 發展된 實踐은 다시 새로운 段階의 理論을 要求하는 것이다. 또 理論便으로서 본다면 理論은 實踐을 發展시키는 同時에 自己를 發展시키고 그리하여 發展된 理論은 다시 새로운 階段의 實踐을 要求하는 것이다. 理論과 實踐은 이러한 階段을 밟으며서로 發展되는 것이오, 따라서 兩者의 辯證法的 統一 때문에 理論이 決코 現實의 實踐의 地盤으로부터 遊離할 수 없는 것이다. 實踐은 恒常 自然 成長的으로 自己를 發展시키기 爲하여 理論을 要求한다. 實踐으로서 보면 理論은 客觀的인 것이다. 그러나 이 客觀的은 그 自身이 現實의 實踐에다가 地盤을 두어야 할 것이다. 實踐은 自己로부터 나와서 客觀的인 理論으로 移行하지만은 이 客觀的인 理論이라는 것이 結局 實踐 自身의 把握임으로 해서 客觀的인 理論으로 移行함이 客觀的인 自己의게로 歸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過程을 거듭함에 따라 理論은 漸次로 그의 絶對的 眞理性으로 接近하여 가게 되고 實踐은 自然發生的인 實踐으로부터 意識的으로 또한 理論的으로 鍛鍊된 深刻한 實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야 나는 理論이 實踐의 客觀적인 眞理인 眞理임을 알 수 있으며 「哲學하는 것」이 그 發展에 있어서 實踐의 地盤과 恒常 辯證法的 關係를 매자 나아가야 할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여기에서 哲學은 「엇더케」하여야 할 것인가 「哲學하는 것」의 方法이 應當 엇더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斟酌케한다. 直接的인 感性的 認識은 全體로서의 對象의 發展過程을 反映치 못하며 對象의 內的 戀結을 把握치 못한다. 이러한 內的 戀結을 明白히 하기 爲하여 우리의 認識은 感性的인 知覺으로부터 抽象的 思惟로 나아가서 우리의 思惟속에 이 內的 戀結을 바로 反映하여야 된다. 이러한 抽象으로 因하여 비릇오 現實的 存在는 더 一層深刻하게 正確하게 그리고 더 一層完全히 反映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抽象은 普通의 意味에 잇서서의 抽象일 수가 없고 그의 實踐的 地盤을 遊離할 수 없는 關係上 必然的으로 現實的 存在와는 끊을 수 없는 關聯을 가지게 된다. 그럼으로 感性的 認識은 理論的 認識으로 나갔다가 다시 高度의 認識으로부터 實踐으로 轉向케 된다. 即始初에는 個的 現象의 知覺으로부터 出發하여 一般的인 抽象的 認識으로 나아가 이 現實的 存在를 一層深刻하게 把握함으로써 다시 現實的 存在에 對하여 새롭은 實踐的 活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일으는 바 抽象은 옛던 非現實的, 非歷史的, 非社會的인 概念에 到達하려는 것이 아니오, 언제나 現實的 存在의 範圍에서 逸脫할 수 없는 것이다. 果然 우리의 方法은 그 發生의 地盤인 實踐을 떠나 잇을 수 없는 것이다. 萬一 이러한 實踐的 地盤을 遊離한 方法論이 잇다면 그는 眞實로 方法을 發見하려는 識意를 가지지 못한 一場閑談에 不過할 것이다. 이러한 冒險은 一定된 方法없시하는 研究와 같이 精力의 헛된 濫費에 나빠질 念慮가 없지 않다. 이에 우리의 「哲學하는 것」은 理論的 範圍內的 辯證法에 머무르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 方法에 잇서서도 또한 根本的으로 理論과 實踐과의 辯證法的 立場에 서게 된다.

나는 前日에 ) 「哲學하는 것」의 出發點을 考察하여 본 結果 現實的 存在에 잇지 아니한가 하는 結論을 얻었었다. 그리하여 마치 「哲學하는 것」의 「對象」을 現實的 存在에서 把握하게 되었든 것이라고 할 수 잇다면 이제 나는 다시 「哲學하는 것」의 實踐的 地盤을 檢討함으로써 「哲學하는 것」에 잇서서의 辯證法的 方法에 到達된 것이라고 볼 수 잇슬가 한다. 나는 우리의 哲學을 찾으려고 나서는 首途에 잇서서 인제 겨우 그의 對象과 方法에 對한 若干의 素措를 하여본 데 지나지 모하는 것이다.

(一) 本誌第一號拙稿 參照